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올해 특별한 전북 향한 백년대계 준비”

### 2024년 전북도정 운영 방향

▶ 관련기사 3면

제1목표는 전북경제 활성화  
농생명산업 수도 등 5대 목표  
자치도 등 10대 역점시책 제시

김관영 도지사 “자치도 혁신  
향해 도전경성 자세로 앞장”

전북도는 2024년 갑진년 새해, 나무  
를 심는 사람의 마음으로 특별한 전북  
을 향한 백년대계(백년대계)를 준비하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12월  
부터 시행되는 333개 특례를 잘 준비  
해 5대 핵심산업과 3대 기반 분야에  
창조적인 도전을 실행하고 도민이 체  
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정 제1  
의 목표는 전북경제 활성화라고 밝혔  
다.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전북, 인재가  
찾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투자여건을  
지속 확충하고, 10대 역점시책은 더  
튼실하게, 더 정밀하게, 더 속도감 있  
게 전개하겠다는 의지다.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2024년 도정 운영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3일 전북도청 기자  
회견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도정 운영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 도민과 함께 성공시대를 열겠다'  
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1년 반 만에 도지  
사 공약인 대기업 5개사 유치에 달성  
했고,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계획인 대규모 투자가 18건  
으로 취임 후 9개사 11.4조원 기업유

치 성과는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  
하는 희망이 될 것이라 평했다.  
1년의 성과로는 △10조원이 넘는 역  
대 최대 기업유치 달성,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 통과, △RIS,  
RISE, 글로벌대학30 등 3대 교육혁신  
사업 확보, △세계적인 비즈니스대회  
유치, △새만금사업 정상추진 국가에  
산 확보 등을 언급하며 “성과에 일희  
일비하지 않고 어려운 도전을 마다하

지 않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 나가  
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 경제를 견인할 동력  
도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면서, 이차  
전지, 방위산업, 바이오산업, 삼성스마  
트공장 등 도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으로 새로운 기업의 투자가 진  
행되고 기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눈  
에 띄게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청년들  
의 안정적 정착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  
라 전망했다.

김 지사는 “푸른 용의 해, 비바람과  
고난을 견디고 하늘로 승천하는 등용  
문의 설화처럼 성장통을 이겨내고 힘  
차게 비상하자”고 굳은 의지를 밝혔  
다.

2024년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함  
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  
전과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의 5대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0대 역점시책으로는 △특별한 100  
년을 향한 전북특별자치도 개막, △미  
래 성장기업 유치, 친기업 환경 조성  
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생경제  
실현,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 △문화·  
체육·관광 산업 연계 강화 지역성  
장 견인, △새만금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 및 균형발전 SOC 구축,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지속 발전 가능  
한 에코유티링 1번지 조성, △365일 선  
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  
통·협력으로 함께 혁신 동력 강화를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  
도의 혁신을 향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도지사가 앞장 설 것이다”며, 도민 여  
러분께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  
계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중앙부처·기업지원 유관기관·도내 시군 지원사업 '한눈에'  
도내 20여개 기업지원기관 참여...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  
통합 플랫폼으로 현장중심 기업민원 처리 기업에 힘 보태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라북  
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일부터 운영 개시했다고 3  
일 밝혔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은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는 전북도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통합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정  
확하게 해결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

는 지원사업을 한눈에 보기 위한 목적  
으로 구축됐다.

지난해 8월 1일 전라북도 전라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라북도경제통상진  
흥원 등 도내 20여 개 기업지원 기관  
들은 어려운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  
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할 수 있도록 뜻을 한데 모았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기  
업지원 유관기관, 도내 14개 시군의  
지원사업 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자금·  
융자지원, 기술·특허, 세무·회계 등  
11개 분야)이 가능하며, 실시간 전화  
상담, 비대면 화상상담, 방문 상담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컨설팅 신청분  
야 및 내용에 따라 전문가가 매칭돼  
컨설팅이 진행되며, 신청한 애로사항  
이 해결될 때까지 지정 직원 및 전문  
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민선8기 도정은 기업유치를 통한 전  
북 도민경제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정  
하고, 전북도에서 기업인들이 어려움 없  
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  
스템은 통합 플랫폼으로서 현장중심  
의 적극적인 기업민원 처리로 중소기업  
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장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으로 대내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해 기업하기 좋  
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기업에 활  
력을 주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  
스템(www.jbkk.kr) 관련 문의는 경제  
통상진흥원(대표번호: 711-2114)으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올해 전북교육 사자성어 '개신창래'

(開新創來)

도교육청, 도전정신으로 혁신 이뤄내려는 의지 담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  
'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개신창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  
다는 뜻으로, 끊임없는 도전정신  
과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와 혁신  
을 이뤄내려는 의지를 담았다.

이는 업무에서의 도전이나 어려  
움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  
들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  
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어 “교직원들은 물론 우리 학생들도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  
하기 위해 '개신창래'의 자세로 도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  
교육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피어나다 남민 NAMWON 민민

